

금융위원회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자료

1. 적극행정 제도 활용 현황 ('21.6월 기준)

| 구 분 | '19년 | '20년 | '21년(상반기) | 비고 |
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적극행정위원회 | 1 | 12 | 4 | 현안 처리 건수 |
| 사전컨설팅 | 0 | 4 | 4 | |
| 자체감사 면책 | 0 | 0 | 0 | |

2. 중점과제 현황 및 우수사례

< 중점과제 현황 >

- ① 한국판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20조원 등 조성
- ② 데이터·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
- ③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
- ④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

□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협업과제 ☞ 협업으로 문제해결

- (난관) 소비자들이 다양한 카드에 적립되어 있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복잡한 인증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했음

- 또한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는 물품의 구매·용역의 이용 외에는 사용하기 어렵고, 카드사는 카드포인트를 쉽게 사용토록 하는 데 소극적이라 연간 약 1천억 원 이상의 카드포인트가 소멸

- (적극행정) 금융위 주도로 여신금융협회, 카드사, 금융결제원과 협업을 통해 “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”과 “계좌이체·조회 시스템”을 연동 → 하나의 앱에서 간편한 절차로 카드포인트 현금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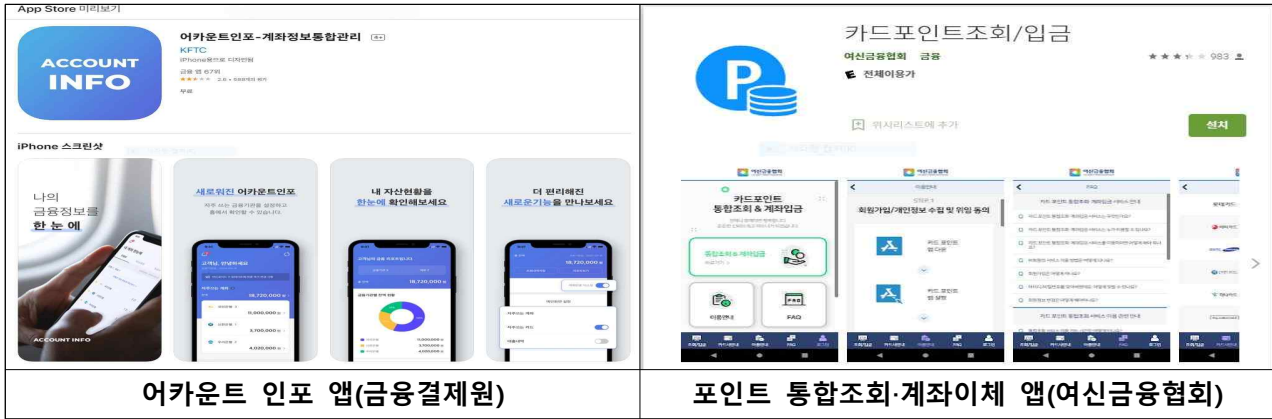
- 정책 시행('21.1.5일~)이후에도 국민 의견을 청취하여 지속 제도개선

* ①'21.3월, 여신협회 앱의 본인인증수단 다양화(PASS인증 도입 등)

②'21.4월, 현대카드 M포인트를 모바일 앱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

③'21.6월, 고령층**을 위해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도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개시

** 고령층의 경우 모바일 앱 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유선민원이 다수 접수되어, 상대적으로 친숙한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방식도 도입



어카운트 인포 앱(금융결제원)

포인트 통합조회·계좌이체 앱(여신금융협회)

- (성과) '21.1~9월 중 2,090만건 신청, 2,293억원 현금화하는 등, 국민의 정책 체감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

※ '자투리 카드포인트' 현금으로 바꿔준 공무원에게 박수를 (1.6일 한국경제)

- 담당자 : 유원규 중소기업과 사무관 [적극행정위원장 표창, 포상금 지급('21.6월), 국무총리 적극행정 골든볼 수상('21.8월),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예정

□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추진 ➡ 적극적 조치로 해결

- (난관) 다소 엄격한 가입주택 기준*, 사망시 배우자로의 연금이전 어려움** 등으로 주택연금 활성화에 제약

* (예) 오피스텔, 9억 초과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음

**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의 전원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이전되지 않았음

- (적극행정) 가입주택 기준 확대*,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을 통한 배우자 연금이전 용이성 제고 등을 위해 신속한 법령개정** 완료

* 주택 가격상한을 시가9억원 →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 /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

** '20.12.8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완료, '21.4.27. 시행령 개정 완료

【 배우자 자동승계 예시 】

- ▶ A씨 부부는 공동명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였고 남편이 먼저 사망하였습니다.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수급권이 이전되려면 자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, 자녀 중 한명이 동의하지 않아 주택연금이 끊기고 그간의 연금 대출도 모두 상환해야하는 상황
- ▶ 앞으로는 가입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계약하여, 생존해 있는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

- (성과) 개선 후 현재까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보유 고령층 가입 1,074가구, 신탁방식 가입 854가구 등 추가가입 확대

• 담당자 : 김기태 가계금융과 사무관 [장관표창, 포상금 지급(21.6월),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예정]

□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소 ➡ 적극적 조치로 해결

- (난관)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업체의 강요, 보험가입 확인 체계 부재 등으로 각 업체별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 지속

※ (예시) 2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는 대리기사는 개인보험(예: 113만원)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나, 해당 업체로부터 쿨을 받기 위해 2개 단체보험에 중복해서 가입해야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가중(예: 108만원x2=216만원)

- 대리운전업 관련법령이 없어 대리운전업체에 대한 감독수단도 부재

* 19대, 20대 국회에서 「대리운전업법」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

- (적극행정) 중복가입 문제 해소를 위한 「대리운전보험 확인 시스템」 구축을 위해 담당자가 주요 대리운전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설득

*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 확인 → 단체보험 중복가입 해소

- 공정위(거래상 지위남용), 국토부(대리업 감독) 등 관계부처에도 협조 요청

- (성과) 금년 1월 「대리운전보험 확인 시스템」 오픈, 11개 업체가 참여* 하고 있으며, 누적 이용실적 약 20만건

* 수도권은 대부분 참여 / 지방업체도 공정위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참여 독려 예정(21.下)

• 담당자 : 김기훈 보험과 사무관 [장관표창, 포상금 지급(21.6월),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예정]

3. 자랑할만한 시책

□ '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' 대통령상, 국무총리 적극행정 골든볼 수상

- 2021.6.17.(목) 행정안전부·인사혁신처 주최로 열린 범부처 '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1위'

* 금융위원회에 대통령상 및 시상금 3백만원 수여



언론 보도

○ 2021.8.31.(화) 국무총리 적극행정 골든볼 수상



□ 2021년 상반기 금융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

- 내·외부 공모로 12개 사례를 접수하였으며, '적극행정 모니터링단'* 국민심사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7개 사례**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

* 적극행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국민, 금융위 서포터즈 등 22명 위촉

**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사례(4건) ▲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, ▲구독경제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,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 달성, ▲대리운전기사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, ▲주택연금 활성화 제도 개선 사례

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관련 사례(3건) ▲정책형 뉴딜펀드 조성·운용, ▲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갈등관리체계 구축, ▲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쟁 제고

- 금융위원장은 우수공무원 6명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직접 수여하고,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